

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2회 콜로키움 개최를 알려드립니다.

유전정보에 대한 해석능력은 아직 미흡하지만 유전자분석 및 유전정보에 대한 보관 및 분석을 위한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다양한 예측성 유전자검사가 시도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는 **DTC**(Direct-To-Consumer, 소비자 대상 직접) **유전자검사**(이하 'DTC 유전자 검사')는 그러한 기대와 우려의 정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. 우리나라는 2015년 생명윤리법 개정('16.6.30. 시행)을 통해 체질량지수, 콜레스테롤, 혈당, 혈압, 모발 굵기, 카페인 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를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 허용항목 확대에 대한 요구와 질 관리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
일반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수행되는 유전자검사는 진료 과정에서 대상자 특성에 따라 필요 시 의사의 판단 하에 선택적으로 시행되지만 'DTC 유전자 검사'는 검사 여부를 검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검사 내용이나 결과의 함의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뢰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.

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**소비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정보로서 DTC 유전자검사나 그 결과가 갖는 의미와 한계,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**을 돕고자 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주 제 : 소비자가 알아야 할 DTC 유전자검사 - 오해와 진실
- 연 자 : 김명신 교수(가톨릭 의대,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)
- 일 시 : 2020년 12월 15일(화) 오후 3시
- 장 소 : 온라인 웨비나 (사전등록 필수, 아래 링크 참조)
- 문 의 : 이연호 주임연구원(yhlee@nibp.kr)

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※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**질문을 미리 접수하려고 합니다. 질의사항이나 의견**이 있으시면 행사담당자 이메일(yhlee@nibp.kr)로 12월 6(일)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